

“AI가 제안하고 로봇이 최적 작업… 지속성장 농산업 기여”

대동에이아이랩 간담회

‘농업 피지컬 AI’ 기술 개발 주력
경운·파종·수확 등 작업 자동화
“데이터 기반 선도적 입지 구축”

사람이 땀 흘리며 손으로 하던 농사를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도움으로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국내 1위 농기계 기업인 대동그룹이 AI·로봇 관련 계열사들을 통해 미래 농업 대전환을 주도해 나가면서다. 포문은 ‘농업 AI 전문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한 대동에이아이랩이 열었다.

대동에이아이랩 최준기 대표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동 서울사무실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갖고 “AI가 농업에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선 농업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대동에이아이랩은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을 보다 손쉽



대동에이아이랩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동 서울사무실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최준기 대동에이아이랩 대표, 나영중 대동 P&Biz부문장, 이광욱 대동 국내사업부문장

고 스마트하게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AI 기반 농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I 농기계와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 농작업을 수행하고 재배 AI가 생육을 예측해 최적의 농법을 제안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골자다.

대동은 올해 하반기에 국내 최초로 비전 AI 기술을 장착한 다목적 운반로봇(RT-100)을 선보인다. 내년 3월에

는 자율주행 4단계가 가능한 플래그십 트랙터(TG-320)를 출시하는 등 관련 제품들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농업 분야에서 AI 기술 핵심 적용 분야는 이동, 작업, 재배다.

‘이동 AI’는 다양한 야외 환경에서도 농기계와 로봇이 스스로 주행 경로를 판단하고 최적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동에이아이랩은 지난해부터 전국에 있는 과수

원, 밭 등 약 50만장의 사진과 300만 여건의 주행 영상을 수집하는 등 국내 최대의 농업 데이터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농경지 환경에 최적화한 자율주행 AI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람이 직접 하던 경운(논밭 갈기), 파종, 시비, 방제, 수확 등 다양한 수작업을 자동화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작업 AI’도 미래 농업에서 꼭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농업의 기계화율은 논농사가 98%로 높지만 이에 비해 밭농사는 67%, 과수원은 31%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동은 새로운 개념의 농업 로봇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농업 피지컬 AI(Physical AI)’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트랙터에 카메라와 센서를 부착해 토양 상태를 분석하고 작업 품질을 실시간 평가하는 자율작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엔 로더, 그리

퍼, 시비기 등 다양한 기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 대표는 “향후 공장이나 가정에서 피지컬 AI가 본격화 될때 농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갖추기 위해 다양한 작물의 농작업 데이터를 단계별·작업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면서 “피지컬 AI 시대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만큼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피지컬 AI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숙련된 농부의 경험과 지식을 AI로 구현해 누구나 안정적으로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돕는 ‘재배 AI’ 기술도 관련이다.

대동은 지난 4년간 실증을 거쳐 올해 국내 최초로 벼에 대한 정밀농업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온실 분야에선 대동에이아이랩을 통해 ‘스마트팜용 과수 재배 AI’를 개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주4.5일제 ‘뜨거운 감자’… “유연한 설계 필요”

정부 정책에 기업·지자체 동참
기대·우려 상존… 철회 사례도

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일부 기업은 발 빠르게 동참하고 있지만, 기존 주 4일제를 철회한 사례도 나오면서 도입을 둘러싼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주 4.5일제’를 한 시적으로 시행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를 휴무로 전환하거나, 주 32~36시간 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를 뒷받침할 조례와 예산을 마련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중심으로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

정부 지원 이전부터 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민간 사례도 확산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9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타운홀미팅을 통해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찾겠다”면서 “경기도가 먼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뱌으로써, 새 정부가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고,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4.5일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카페24는 올해부터 임금을 동결한채 주 4일제를 전사적으로 시행했다. 파주의 한 중소 제조업체는 격주 단위로 금요일을 휴무로 지정하는 ‘격주 4일제’

를, 성남시의 한 IT기업은 기존 주 35시간제에서 주 30시간제로 추가 단축을 시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인 코아드도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를 도입했다. 일과 삶의 균형, 인재 확보,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선제 도입의 배경이다.

하지만 실제 도입 배경이 ‘복지 확대’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고정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주 4일제 도입을 활용하기도 했다. 초기에는 근무일 축소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거나 비정규직 전환을 병행하며 고정비를 절감하고자 한 경우도 존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기업 에듀윌이

다. 에듀윌은 2020년 주 4일제를 선언했지만, 운영 4년 만인 2024년 말 다시 주 5일제로 회귀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고정비 상승과 사업 확장 제약이 누적되면서, 운영 안정성과 생산성 확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포스코 등으로 인해 전면도입을 보류하거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제도를 실험한 이후 현실적 한계를 마주한 사례로, 업계에서는 ‘4일제 환상’이 꺾인 결정적 장면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현장 분위기도 달아오르기보다는 관망과 신중 사이에 놓여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성과 측정 기준이나 인

력 재배치 전략없이 근무 시간만 줄이면 오히려 조직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HR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제도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업종·규모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화보다 유연한 설계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정책 관련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은 업무 방식·조직 문화·성과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설계돼야 지속 가능하다”며 “일률적 강제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인천시 등 타 지자체도 자체 예산을 투입한 ‘근무시간 실험’을 검토 중이다. 정부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올 하반기 이후 전국 단위 확산 여부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현대로템, 부산신항에 AGV 추가 공급

물류 고도화 등 긍정적 영향 기대

현대로템이 부산 신항에 스마트 물류 핵심 설비인 항만 무인이송장비(AGV)를 공급한다.

현대로템은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이하 DGT)에서 발주한 부산 신항 7부두 항만 AGV 공급 사업의 발주의향서(LOI)를 수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항만 AGV는 부두의 컨테이너를 적재해 하차 장소까지 자동으로 이송하는 항만 물류 자동화의 핵심 설비이다. 향후 현대로템은 본계약 절차를 거쳐 부산 신항 7부두에 항만 AGV 57대와 함께 차량 운영에 필요한 관제시스템, 충전기 등 부대 설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이미 2023년 DGT로부터 부산 신항 7부두 항만 AGV 43대를 수주해 개장에 맞춰 적기에 공급했고

이번 사업을 통해 추가로 항만 AGV 57대를 납품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광양항 자동화 부두 AGV 44대 공급 사업을 수주하는 등 3년 연속으로 스마트 물류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번에 납품되는 AGV가 동북아-유럽 교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부산 신항 물류 고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스마트 항만 기술 경쟁력 강화와 관련 국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에 힘써 국산 항만 AGV의 핵심 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항만 AGV를 적시적기에 공급하고 최적화된 사후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코웨이 “NC파크에서 비렉스 체험해보세요”

NC다이노스 파트너십 체결

코웨이가 NC 다이노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경남 창원 NC파크 스카이박스에 비렉스(BEREX) 체험존을 운영한다.

17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창원 NC파크 스카이박스 416호를 ‘비렉스 체험존’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공간은 사전 예약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 스카이박스와 달리 경기 시작 15분 전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비렉스 안마의자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픈형 공간으로 구성했다. 체험존에는 비렉스 트리플체어, 페블체어를 비롯해 마인 시리즈와 안마베드 등 비렉스 안마의자 전 라인업이 전시돼 관람객들은 현장에서 편안하게 제품을 경험할 수 있다.

코웨이는 또 NC 다이노스 선수단을 위한 제품도 지원한다. 창원 NC파크와 마산야구장의 선수단 라커룸 및 휴게 공간에 비렉스 안마의자와 노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선수들의 휴식과 컨디션 관리를 돕고, 선수 숙소에는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와 아이콘 열음정수기 등을 설치해 최적의 휴식 환경을 마련했다.

코웨이는 키움 히어로즈에 이어 NC 다이노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두터운 팬덤을 보유한 있는 프로야구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소비자에게 코웨이 슬립·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의 가치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다양한 고객층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모나리자 ‘포켓 비데 물티슈’ 출시

모나리자가 휴대성과 위생, 디자인을 모두 갖춘 ‘포켓 비데 물티슈(사진)’를 출시하며 MZ세대 공략에 나섰다.

모나리자가 한 손에 들어오는 초소형 사이즈의 ‘포켓 비데 물티슈’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코로나 이후 높아진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과 휴대용 위생용품 수요 증가에 발맞춰 기획했다.

신제품은 가로 9.5cm, 세로 4.1cm의 초소형 규격으로, 가방이나 파우치, 주머니 등에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100% 자연 유래 셀룰로오스 원단을 사용해 피부 자극을 줄이고, 물에 잘 분해되는 플러셔블 소재로 제작돼 사용 후 변기에도 안전하게 버릴 수 있다.

/최빛나 기자

